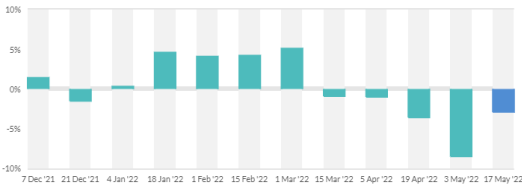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가격 5회 연속 하락세

— 원유 공급량 부족으로 전장대비 2.9% 떨어져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00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159
Number of Bidding Rounds	16	Quantity sold (MT)	24,285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2:13		
Minimum Supply (MT)	23,435		
Maximum Supply (MT)	27,090		

지난 5월 17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2.9% 떨어지며 5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지수 또한 1,340포인트로 전장대비 3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지분유가 톤당 3,934달러(약 499만원)로 전장대비 4.9%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버터도 톤당 5,750달러(약 729만원)로 1% 떨어지며 그 뒤를 이었다.

탈지분유도 0.6% 하락한 톤당 4,116달러(약 522만원)를 기록했고, 체다치즈도 톤당 5,635달러(약 715만원)로 0.1%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2주 전 2015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데 이어 세계 원유 공급량은 계속해서 빠듯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령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전장대비 가격 하락세가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5월 17일 >

[시장동향] 세계 유기농 유제품 시장, 2027년까지 연평균 7.9% 성장 전망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시장 확대 추세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유기농 유제품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업체인 IMARC 그룹을 통해 발표된 '2022-2027년 유기농 유제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유기농 유제품 시장 매출이 약 222억 달러(약 28조원)에 달한 가운데 오는 2027년에는 약 348억 달러(약 43조원)에 이르며 연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들어 유기농 유제품은 우유뿐만 아니라 크림, 버터,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유기농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물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법이 확산되고 혁신적인 유기농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유기농 유제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출처 : digitaljournal.com, 5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